



즉시 배포용: 4/9/2015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링컨 대통령 서거 150주년을 맞이해 PATH THROUGH HISTORY 행사 개최를 발표하다

4월 25일 의사당에서 특별 전시회와 여름 내내 개최될 기타 행사는 링컨 대통령과 뉴욕주와의 연관성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애브러햄 링컨 대통령 서거 150주년을 맞이해 이달부터 뉴욕주 의사당에서 4월 25일 토요일 무료 행사를 비롯해 뉴욕주 전역에서 다수의 특별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날은 1865년 Albany에 살해된 링컨 대통령의 시신을 실은 장례 열차가 도착한 날로, 그는 4월 26일 옛 의사당에 안치되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미국의 가장 어두웠던 암흑기 중 한 때에 우리 미국을 이끄신 분으로, 단합과 평등에 대한 그분의 신념은 지금도 우리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그의 서거 150주년을 맞이하여, 모든 뉴욕주민들께 그이 생애와 그가 남긴 유산 그리고 우리 미국에 끼친 심오한 영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주 의사당의 East Gallery는 링컨에 대한 추모야 남북전쟁 당시 뉴욕이 북군에게 했던 공로 활동 등을 내용으로 전시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 전시회의 중심은 대통령 관을 덮었던 국기입니다. 이 밖에도, 재현 연기와 시대 음악 등을 포함해 링컨 대통령을 테마로 한 많은 행사들이 의사당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날의 마무리로 국립공원관리국(National Parks Service)은 오후 3시30분 – 6시30분에 의사당 전쟁관(War Room)에서 링컨 대통령역을 맡은 유명 배우가 나오는 발표회를 후원합니다. 모든 행사는 무료로 제공되며 일반인에게도 공개됩니다. 그러나 좌석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링컨연극은 예약을 해야 합니다. 예약은 www.governor.ny.gov/lincolntribute에서 할 수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여름 내내 의사당에서 링컨 전시회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뉴욕의 Path Through History 프로그램은 뉴욕주 전역에서 링컨 대통령, 남북전쟁 및 뉴욕주와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사이트와 행사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iloveny.com/Lincoln>을 참조하십시오. 국립공원 장례 열차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국장 Jonathan B. Jarvi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국립공원관리국은 미국의 가장 큰 국가적 위기였던 이 날의 150주년을 기념하면서, *남북전쟁에서 시민권까지(Civil War to Civil Rights)*라는 테마로 21세기와 지속적 연관성을 조명해왔습니다. 이 150주년 행사의 끝이 얼마 남지 않음에 따라, 링컨 대통령의 장례 열차에 대한 기념 행사는 뉴욕주의 주요 도시 세 곳을 포함해 일리노이 주 스프링필드를 따라 장례식이 열렸던 주요 도시를 집중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 Albany, Buffalo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남북전쟁 당시 전장과 뉴욕주 전선에서의 북군의 활동에서 뉴욕주의 중요한 역할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공무 관련 수석 부관장인 Harold Holz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만큼 북군을 보존하고 노예제 폐지를 위해 링컨의 전쟁에 군인, 군자금 또는 더 많은 혁신을 쏟은 주도 없습니다. 또한 뉴욕만큼 그의 암살을 놓고 공개적으로 열정적으로 슬퍼한 주도 없습니다. Manhattan, Albany, Buffalo에서는 잊을 수 없을만큼 엄청난 수의 추모객들이 링컨의 암살을 애도했습니다. 그러나 전시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Hudson Valley에서 Southern Tier에 이르는 곳곳의 타운과 마을과 그의 장례 열차가 일리노이 주 스프링필드로 돌아갈 때 거쳐가는 철로에서도 추모와 애도가 이어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뉴욕 주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알려지지 않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Albany에서 그의 관을 덮었던 국기를 훌륭히 잘 보존한 것에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이 국기는 우리 주가 링컨의 손에 예비 노예해방령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Albany 여성이 1865년에 건네 준 것입니다. 저는 LBF(Lincoln Bicentennial Foundation)의 회장으로, 이 국기 보존 활동을 지원한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링컨 역사가로서 저는 Mark Schaming 및 뉴욕주박물관과 함께 이 국기의 해석에 대해 연구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뉴욕주민으로써 의사당과 뉴욕주에서 역사 교육과 전시회사 열릴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여주신 Cuomo 주지사께도 감사 드립니다.”

4월 25일 토요일 오후 1시 – 7시, 뉴욕주 의사당

오후 1시 – 제123 뉴욕의용군, 제125 뉴욕지원병연대, 제26 USCT, 제7 뉴욕중포병부대 및 기타 남북전쟁 부대들을 연기하는 남북전쟁 재현연기자들이 Swan Street 부근 West Capitol Park에 모여 Washington Avenue에서 East Capitol Park까지 기념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East Capitol Park에서 링컨 대통령을 추모하는 기념식을 가질 것입니다.

기념식이 끝나면, 재현연기자들이 계속 남아 질문을 받고 행군훈련과 남북전쟁 군사력시위를 보여줄 것입니다. 제7뉴욕중포병부대의 일부였던 당시 12파운드 Mountain Howitzer 복제 대포도 East Capitol Park에서 하루 종일 전시될 예정입니다.

오후 2시, 3시, 4시, 5시, 6시 – 의사당 무료 관람이 실시됩니다. 관람은 1층 상원

계단부에서 시작합니다.

오후 3시30분과 6시30분 (온라인 예약 필수) – 뮤지션 Anne과 Ridley Enslow 부부가 1860년 당시 의상을 입고 노래와 음악을 통해서 위대한 미국 남북전쟁을 드라마와 페이스스로 재현할 것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유명한 링컨 분장가인 Fritz Klein이 나와 1인칭 해석 프로그램을 통해 링컨 대통령이 재임 당시 미국을 위해 가졌던 희망과 꿈을 전할 것입니다. 좌석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공연 시간은 약 90분 정도입니다. 예약은 www.governor.ny.gov/lincolntribute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보존된 국기 전시회 하이라이트

이 링컨 장례식 열차와 남북전쟁 전시회에서는 1865년 4월 26일 뉴욕 Albany에 있는 의사당에 암살 당한 링컨 대통령의 관이 봉안되면서 그곳에 놓여 있던 상여, 또는 연단 주변에 깔렸던 국기가 전시됩니다. 또한 워싱턴 D.C.에서 뉴욕을 거쳐 일리노이 주 스프링필드까지 시신을 운반한 장례 열차 경로를 따라 제가된 장례식 관련 공예품, 링컨의 마지막 날 연대기, 비극적인 죽음, 링컨을 추모한 많은 추모행사의 모습도 전시됩니다. 이 전시회는 또한 남북전쟁 및 이와 관련된 역사적인 인물 및 공예품에 뉴욕주가 공헌한 것도 집중 조명할 것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관을 씌웠던 국기는 1861년 뉴욕주 국무장관이자 전 뉴욕주지사이자 미국상원의원이었던 William H. Seward가 Thurlow Weed의 딸이자 정치자문관이면서 Seward 자신의 절친이었던 Emily Weed Barnes에게 주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링컨의 시신을 담은 관이 의사당에 도착하자 Mrs. Barnes는 상여를 이 국기로 감쌌습니다. 이 국기는 Barnes 가족이 보관하고 있다가 New York State Battle Flag Collection에 기증했고 1930년 Franklin Roosevelt 주지사가 받았습니다.

총무처(Office of General Services) 장관 RoAnn M. Destit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의사당을 관리하는 곳으로서 OGS는 Cuomo 주지사께서 이 건물을 시민들이 일하는 정부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에 대해 알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준 것에 기쁘게 생각합니다. 링컨 전시회는 과거를 되돌아보고 링컨과 그분이 남긴 유산과 관련된 훌륭한 역사를 경험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 관광부 실무국장인 Gavin Landr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애브러햄 링컨이 국가적 단계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었고, 그의 대통령직 수행과 유산은 뉴욕주에 깊은 유대를 두고 있습니다. 뉴욕주민들의 고향이자 마지막 안식처에서 Underground Railroad 안내원이었던 Harriet Tubman; 노예제도 폐지론자였던 John Brown; 링컨의 국무장관 겸 친구였던 William H. Seward; 북군 장군이었던 Ulysses S. Grant와 같이 남북전쟁 및 남북전쟁 관련인사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Burden Iron Works, Brooklyn Navy Yard 및 West Point Foundry, 뉴욕의 Path Through History와 같이 남북전쟁 당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산업 및 기술 현장이 관람객들을 150년 전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주립공원소장인 Rose Harve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역사에 끼친

공헌과 우리 뉴욕주와의 연관성은 그의 서거 기념일을 맞이하는 이번 달 다시 살아나 우리 곁에 함께 할 것입니다. 뉴욕주민들은 많은 행사와 전시회를 통해서 남북전쟁 시대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뉴욕주의 과거 이야기와 뉴욕이 그 시대에 끼친 영향을 알려주는 행사를 보다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그 시대에 기념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뉴욕주의 많은 주민들이 그가 남긴 유산을 함께 나누고 기리게 되길 바랍니다.”

Path Through History 소개

Path Through History는 뉴욕주 전역에 자리한 역사적 및 문화적 장소와 행사를 알리기 위한 행사입니다. Andrew M. Cuomo 지사에 의해 도입된 이 프로그램은 이미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뉴욕의 문화 유산 관광 명소를 바탕으로 꾸며졌습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의 관광부/I LOVE NEW YORK이 관리하는 이 행사는 현재 다음을 포함해 13가지 테마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술 & 문화, 자연사, 미국 대통령, 여성 권리, 운하 및 교통, 민권, 식민지 역사, 이민, 혁신 & 상업, 독립전쟁, 아메리칸 원주민 전통 유산, 스포츠 역사, 1812년 전쟁. 뉴욕주에 펼쳐져 있는 중요한 유적지와 행사는 주요 역사가들의 조언을 받아 선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nphw.org/>에서 확인하십시오.

역사적인 장소를 널리 알리기 위해 뉴욕주는 Path Through History 주간 행사를 열어, 뉴욕의 역사를 축하하고 뉴욕의 보존과 홍보를 위해 힘쓰는 분들과 단체의 훌륭한 활동을 집중 조명하는 라이브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2014년, 383개의 행사가 뉴욕주 62개 카운티 중 55개 카운티에서 열렸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43%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 Path Through History 주간은 2015년 6월 20 - 21일입니다.

Facebook, Twitter 및 Instagram에서 I LOVE NEW YORK을 팔로우하거나 #LoveNYHistory를 사용하여 뉴욕주의 Path Through History 여정에 합류하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